

비판적으로 되짚어 본 '섹슈얼리티'에 이르는 길

조셉 브리스토우의 《섹슈얼리티》를 읽고

조주현 | 계명대 여성대학원 교수

이 책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성 과학, 정신분석, 리비도의 경제, 담론분석으로 나눠 정리했다. 지은이는 최근 추구하고 있는 다양성이 개인의 선택문제로만 이해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욕망의 통합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가 내세운 대안은 성적 욕망을 범주화하는 기표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그동안 서구에서 '섹슈얼리티'란 개념이 사용돼 왔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다양해지고 있는 성 정체성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고, 잠복해 있는 성적 쾌락과 가능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론 네 분야로 정리

이 책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크게 성 과학, 정신분석, 리비도의 경제, 담론 분석의 네 분야로 나누고 대표적인 이론가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논지를 정리한 후, 그 논지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과 수용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장은 초기 성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한 현재의 사회과학적 연구까지 지난 백년 동안 성과학이 섹슈얼리티를 유형화/범주화해 왔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성 과학은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교적 조언과 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은 했지만, 섹슈얼리티의 정상과 비정상성을 가르치는 과학적 기준이 역사적 우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페미니즘이 성 과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성 과학이 이성애적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진정한 기호로 분류함으로써 가장장적 젠더 질서를 영속시키기 때문이다.

2장은 프로이트와 라캉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성 충동, 유아의 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성 섹슈얼리티의 전개, 그리고 유혹의 문제에 대한 프로이트의 연구는 성 과학의 행위 중심성을 넘어 성별 육체와 성적 욕망이 직조되는 복합적인 정신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라캉은 자아, 거울단계, 욕망하는 주체, 오브제 페티 아(objet petit a), 남근으로 존재하기와 남근을 소유하기, 주이상스(Jouissance)의 개념을 통해 섹슈얼리티가 언어 의미작용의 산물임을 밝히고 있다. 페미니즘은 프로이트와 라캉의 연구가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또다시 여성성을 신비화하는 이중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변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양성'의 함정 지적해

3장은 성적 쾌락에 대한 사드, 프로이트, 바타이유, 들뢰즈와 가타리, 보드리야르의 연구를 소개한다. 이들은 죽음과 쾌락간의 긴장, 에로티시즘을 통한 짧은 죽음 혹은 단절의 극복, 욕망기계, 그리고 유혹의 개념을 통해 욕망과 쾌락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포르노물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은 그것이 여성의 종속을 강화한다는 주장과 포르노 규제가 오히려 여성의 상상의 영역을 제한한다는 주장으로 양분된다.



이연정 외 옮김
한나래 / A5신 / 328면 / 15,000원

4장은 푸코의 섹슈얼리티 분석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수용과 비판을 다룬다. 생산하는 성, 생체권력, 그리고 자아에 대한 윤리적 배려의 개념을 통해 푸코는 성적 쾌락의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들을 설명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의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 푸코의 분석은 이후 루빈, 워스, 마틴과 퀴어 이론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세지워의 욕망에 대한 보편주의 관점과 소수주의 관점의 구분, 그리고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섹슈얼리티가 가변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성적 욕망뿐 아니라 성별 육체 또한 고유한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것임을 드러내게 했다.

지은이는 90년대 들어 퀴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소수민족 담론 등이 포스트모더니에 근거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다양성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이해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욕망의 통합을 뜻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 지은이가 제시하는 대안은 성적 욕망을 범주화하는 기표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섹슈얼리티는 범주화의 정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 단일하지 않고 각각의 고유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만큼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